

# 더티칭랩 최종결과보고서

## ■ 개요

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더티칭랩 I <input type="checkbox"/> 더티칭랩 II
연구자(소속) *모듬일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김정례, 강경하, 김희경, 김서은, 조아라(일어일문학과)
주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법과 교재개발 연구
정산금액	일금 <u>사십만원정</u> (₩ 400,000)
연구 기간	2021년 9월 15일 ~ 2021년 12월 10일

2021년 12월 8일

작성자: 김희경 (인)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귀하

## ◆ 연구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와 같은 교육 환경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의 이용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방식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 평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매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구분한 후 이를 근거로 더 나은 수업 방식을 개발해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영상문화연구팀은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영상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유형과 운영 방안을 개발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법과 교재개발 연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영상문화연구팀 담당 교수들이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본영상문화>는 일어일문학과의 2학년 전공과목으로 설강된 과목으로,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부의 타전공 학생들도 함께 수강하고 있다. 초중고 시기부터 접해 온 일본애니메이션 등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일본영화 수업에 흥미를 갖고 수강하고 있으며, 영화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쏟아지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현재 <일본영상문화> 과목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한편, 역사,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화교재는 일본 사회와 문화, 일본인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영화 관련 서적이 출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영화에 한정해 보면 수업 교재(영상물과 강의 접목)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출판물이 아직은 미흡한 편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교재개발 연구와 교수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일본영상문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영화로 읽는 일본』(2015)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하며, 보다 효율적인 수업 운영 및 설계를 위한 교수 전략을 세워 각 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 ◆ 연구 과정(논의사항)

일본영상문화연구팀은 총 4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본 모임은 영화를 활용한 수업이 일본 사회 전반에 접근하는데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법 및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영화로 읽는 일본』(2015)의 개선점에 관해서 토론하고, 『일본영화 일본문화』(2006), 『일본영화, 전통과 권위의 역사』(2017), 『일본영화가 재미없는/있는 10가지 이유』(2020) 등 다른 일본영화 텍스트와 비교, 분석을 한 후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미디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일본영화사(日本映畫史)나, 일본문화에 대한 지식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업보다 효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재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 ▶1차 모임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본영상문화 수업 운영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수업 현황 소개.
- 영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
- 각자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소개 및 자료와 콘텐츠 공유에 대한 논의.
- 학생 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구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 ▶2차 모임

-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화교육에 관한 사례 및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소개.
- 각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용 방법 및 유용한 팁 공유.
- 영화 교재 활용방안 및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 교재 수정 보완을 위한 의견 교환

### ▶3차 모임

- 온라인 시대의 효과적인 영화 수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수법 모색 논의
- 각자의 영화 수업 진행방식과 e클래스 활용 상황, 토론 수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 공유
- 교재개발을 위한 수정 사항 논의

### ▶4차 모임

- 더티칭랩을 마무리하면서 효율적인 영화 수업 운영 및 설계를 위한 교수법과 교재개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정리
- 이번 학기 영화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자가 느낀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논의
- 앞선 3차례 모임에서 나왔던 교재 수정 보완을 위한 해결책과 향후 진행 과정, 계획 정리

## ◆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영화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감상 시각을 길러 주는 수업과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외부 지식을 습득해가는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영상문화> 수업은 우선은 일본영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며, 아울러 일본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언어와 사회 등에 접근해가는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교수법 개발과 교재에 관한 논의에서도 일본영화사(日本映畫史)와 일본문화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어의 학습 및 영화 이해 능력과 감상을 위한 분석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자는 취지를 대전제로 삼았다.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의 팬데믹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영상을 선택,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일본영상문화> 수업에 대해 각자의 수업방식의 장단점과 노하우와 경험을

- 공유하였으므로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수업을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교재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교재 모형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재의 수정 및 보완으로 한층 내실 있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대면 수업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이 일본영화를 통해 일본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더티칭랩에서 얻은 새로운 교수법과 수업모형, 그리고 콘텐츠 정보는 다른 과목의 교수자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비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비롯한 대면 수업에서도 폭넓게 적용하고자 한다.

## ◆ 적용 계획 및 적용 사례

미디어를 선택하고, 분석하고, 창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학습자에게 골고루 향상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텍스트를 선택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법 연구는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 끝에 실제 적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용중인 교재 『영화로 읽는 일본』의 보완 및 수정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업방법의 개선이다.

먼저 교재 개선점에서는, 한국의 근대사회와 관련하여 식민지시대 때 일본의 영화와 문화가 끼친 영향, 저패니메이션의 발달 등의 부분이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1998년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한일영화의 영향 관계 및 일본영화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본영화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영화 전문 잡지 『키네마준포(キネマ旬報)』에서 매년 정하는 '키네마준포 베스트텐' 수상 작품의 분석과 현재 일본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감독들과 작품에 관해서 보강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리터러시 역량 강화 면에서는, 수강생과 토론 과정에서 영화 분석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려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정 토론조를 정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영화 내용 분석을 유도하도록 시도했다. 또한 수업에서 의견 제시로만 마무리할 경우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스스로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영화에 대한 간단한 감상문이나 한 줄 평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의견을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하거나 다른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층 깊고 넓은 견해를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통한 일본문화와 일본사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텍스트와의 관련 속에서 영화 읽기의 방식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교재 개선을 통해 수강생들이 영상매체에 대해 한층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내고, 수업방안 개선을 통해 매체의 분석과 의미의 생성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매체가 지시하는 일본사회 및 일본영화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